



[ETF] 박윤철(2122-9102) nzc888@hi-ib.com

## 8월 들어 헬스케어 섹터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 8월 들어 글로벌 증시 전반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는 양호한 흐름 진행 중
- 자금 유출되던 미국 헬스케어 대표 ETF (XLV)로 8월 들어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
- 국내 헬스케어 관련 ETF AUM역시 연일 상승 중. 헬스케어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되고 있음에 주목

### 1. 기피되던 헬스케어 섹터로 8월 들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8월 들어 증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피치의 미국 장기 신용등급 하향에 이어 무디스가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신용 리스크 이슈가 트리거로 작용했다. 경기 상황이 부담되는 가운데 특징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6월 중순 이후 연일 자금이 유출되던 헬스케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헬스케어 섹터 대표 ETF인 XLV ETF에 8월 들어 자금이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다. 경기 호조를 점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방어주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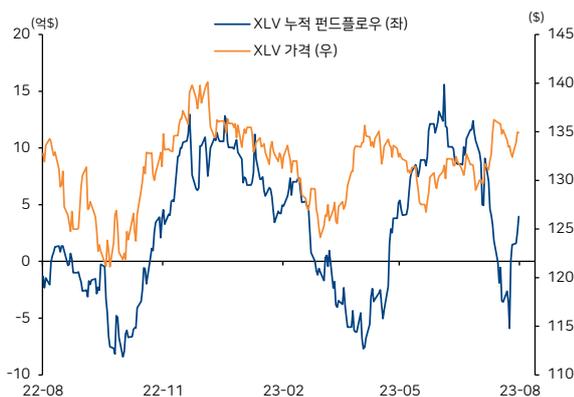
단순 스타일상 접근만이 아니라 실적 발표 흐름도 양호한 상황이다. 실적 시즌 초반 유니티 헬스 그룹 실적 서프라이즈가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바 있고, 가장 최근엔 일라이릴리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헬스케어 전반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 2. 국내 헬스케어 ETF AUM 역시도 상승세 지속 중. 우호적인 환경 속 헬스케어 관련 ETF에도 주목

국내 증시 역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8월 들어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의 성과가 아웃퍼폼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ETF로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8월 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 최초로 출시한 액티브 바이오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462900)는 10일 기준 3일 증가대비 6.3% 상승하며 같은 기간 여타 헬스케어 관련 ETF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상장 이후 시가총액도 약 260억원 증가하며 같은 기간 여타 헬스케어 관련 ETF 대비 월등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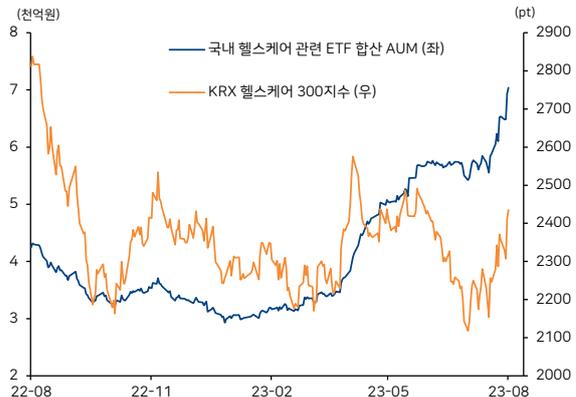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이달 중순에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K바이오 액티브 ETF가, 이달 말에는 신한자산운용의 SOL 의료가기 소부장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헬스케어 섹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그리고 신규 상장될 관련 ETF에 주목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림1. 미국 헬스케어 대표 (XLV) ETF 로 8월 들어 강하게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국내 헬스케어 관련 ETF 로 7월 말부터 자금 유입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윤철)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